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① 광주시립미술관 '민주인권평화전'

8월 15일까지... 5·18 50주년 작가 참여
분단·저항의 역사 다룬 작품 선봬
금남로 분관선 광주 민미협 주관
14~25일 '오월 유전자' 전



박태규 작 '기억-여기 사람이 있소'

오는 18일은 36번째 돌아오는 '5·18'이다. 민주화운동 대명사로 불렸던 '5·18'은 세월이 흐르며 '인권', '평화'를 떠올리는 상징으로 의미를 넓혔다. 광주시립미술관 본관과 금남로분관에서 나란히 기념 전시가 열리며 광주 오월 정신을 알리고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본관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과 5·18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6 아시아 민주·인권·평화미술전 '진실·비틀어 보기'가 10일부터 8월15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는 국내 작가들만이 참여했던 기존 전시 방식에

서 벗어나다.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아시아 5개국 작가 5명이 참여해 민주, 인권,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들 5개 나라는 서구열강들과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이에 대항한 독립운동, 전쟁과 내전 등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작가들은 회화, 설치, 영상 등 작품 16점을 통해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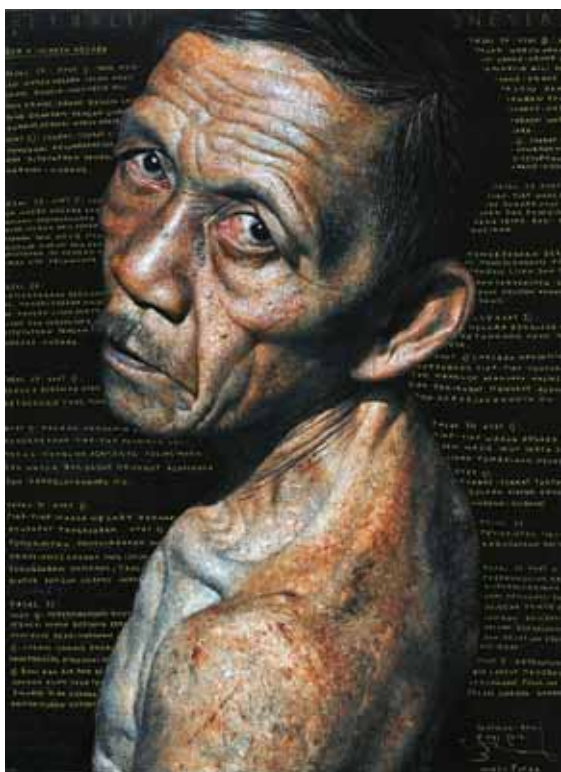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박태규 작가가 대표로 참여한다. 함평 출신 박씨는 광주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그리며 우리나라 '마지막 간판쟁이'로 유명하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전남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1980년대 대학 시절 미술패 활동과 졸업 후 사회미술운동 단체에 참여했다. 그는 생명 존엄과 가치, 자연과 인간의 공존 등을 주제로 직접 실전을 통한 일관된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월 광주 시민군과 진도 팽목항, 세월호 침몰 장면과 무등산을 오버랩 형식으로 표현한 '기억-거기 누구 없소'와 '기억-여기 사람이 있소' 두 점을 출품했다. 기존에 선보였던 작품처럼 이 작품들 역시 영화 간판 형식으로 작업했다. 박씨는 현재 환경·생태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운영' 대표이자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분단 아픔을 겪은 베트남에서 온 레 응옥 타잉, 레 죽 하이 작가는 쌍둥이 미술가다. 형제는 북부와 남부 베트남 사람들의 전후 의식을 살펴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회화,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 통일과 평화를 기원한다.

전시에서 출품한 영상 작품 '게임'은 숲에서 추구에 꽃이 핀 향을 들고 초록색 천을 몸에 감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서로 천을 감아주는 행동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출신 만구 푸트라 작가는 식민지 시대 발리 사람들의 저항 역사를 다룬다. 작가는 작품에서 오늘날 관광지로 변모한 발리가 간직한 상처를 드러낸다. 전시에서 출품한 '그는 나를 쳐다봤다' 작품은 고개를 돌려 관람객들과 눈을 마주치는 벌거벗은 노인을 그렸다. 치켜세운 눈빛에서 분노와 회한 등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만구 푸트라 작 '그는 나를 쳐다봤다'

작가는 어두웠던 역사를 들으며 과거 비극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의 062-613-7143.

금남로 분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36주년기념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가 주관한 제28회 오월전이 14~25일 열린다. 올해 전시 주제는 '아름다운 숲의 대물림-오월유전자(五月遺傳子)'이다. 민미협 회원을 비롯한 작가 28명이 참여해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30여 년 전과 현재가 같다고 이야기한다. 독재정권과 자본권력은 신자유주의체제를 속주로 삼아 신독재주의로 진화했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현정권은 매년 전쟁 위기를 내세운다고 외친다. 1980년 오월 유전자를 물려받은 작가들은 오월 광주 숭결을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전시주제를 잡았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병택 작 '광장의 기억-불꽃'

동신대 문화박물관 '오월의 사유'展

31일까지...기옥란·송동영·신호재 작가 초청

나주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이 기옥란·송동영·신호재 작가를 초청해 '오월의 사유'전을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기작가는 '생명, 교감, 그리고 나눔', 송 작가는 '존재의 흐름', 신 작가는 '반추'를 주제로 5월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씨는 인간과 자연, 현실과 가상, 물질과 정신 등 서로 대비되는 개념을 작품 속에서 아우르며 조화와 상생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물과 인간을 묘사한 '생명, 교감, 그리고 나눔', '아프리카의 눈물' 등을 선보인다.

송씨는 작품 '존재의 흐름' 시리즈를 통해 진정한 미(美)는 내면에 있으며 자신을 직시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붉거나 어두운 배경에 추상적으로 묘사한 여러 얼굴을 등장시키며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신씨가 선보이는 '반추' 시리즈는 인간과 우주, 생명을 담고 있다. 화폭 가득



기옥란 작 '아프리카의 눈물'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을 채우고 인간은 깨알같은 존재로 묘사했다. 드넓은 하늘, 둥근 달과 별빛은 이상세계를 꿈꾸는 인간의 갈망을 반영한다. 문의 061-330-3827. /김용희기자 kimyh@

오월 가족음악회 '꿈꾸는 가족' 금상



제2회 전국 오월 가족음악회 본선 무대(사진)가 지난 5일 광주 수완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단위로 참가팀을 모집한 오월가족음악회는 서류 및 동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에서 금상은 '꿈꾸는 가족'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가 차지했으며,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2월 말 심경경색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참가했다는 '꿈꾸는 가족'은 "음악회 참여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족들 모두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말바우 아짐 지정남씨의 사회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경연 참가자 뿐 만 아니라 '프로로그', '광주영어방송국 소년 소녀영어합창단', '센치한 버스'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심사는 김원준(가수) 남유진(광주음악장조소 총감독), 정유하(음악학 박사)씨가 맡았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은상=가객 공갑▲동상=동이네 ▲참가상=노클레시스엔젤러스·민들레·산들밴드·소울·오르프킨더·의석밴드·하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역선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0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미술·작문 부문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위원장(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